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모음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① A 학생 (1.58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37 | 평균재적인원 171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5	1.20	1.00	1.00	2.00
영어	5	1.21	1.50	1.00	1.00
수학	4	1.42	1.50	1.50	1.00
사회	8	1.55	1.50	1.50	1.66
과학	4	1.25	1.50	1.00	-
예술 · 체육	4	A	A	A	A
생활 · 교양	3	1.80	2.50	1.50	1.00

- 사회 이수과목 : 사회, 사회 · 문화, 법과정치, 국제정치, 세계사, 세계지리, 생활과윤리
- 과학 이수과목 : 과학, 과학교양, 생명과학I, 지구과학 I
- 생활/교양 이수과목 : 정보, 중국어 I, 한문 I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제주 소재 일반고

iii) 교내 수상

영어토론대회 동상(3위)	2018.04.19.
영어에세이쓰기대회 은상(2위)	2018.06.08.
수학자율주제발표대회 금상(1위)	2018.07.20.
○○융합탐구 프로젝트 발표회(공동수상, 4인) 은상(2위)	2018.07.20.
사회과 탐구대회(공동수상, 5인) 은상(2위)	2018.07.20.
수학올림피아드 동상(3위)	2019.07.18.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영어신문제작에 참여하여 ‘복지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영어 기사를 작성함.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참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공공사회복지 지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지향성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과시, 모방, 충동소비와 같은 과소비 경향이 있음을 학습하고 ‘서귀포 청소년들의 소비실태’를 탐구함. 약 320명을 대상으로 종이 및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광고나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면서 과소비와 모방소비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함. 청소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습관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유사 연구와 논문을 참고하여 객관성 및 시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자연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에서 ‘서홍 8경 생태체험’ 코스를 선택하여 하논 분화구를 탐방함. 하논의 심각한 훼손을 눈으로 확인하며 ‘하논의 가치와 보전 및 복원 방안 탐색’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함. 하논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책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여 하논 복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 ‘Oliver Twist(Charles Dickens)’를 읽고 소설 속에 나타난 영국 산업화의 폐단과 아동 인권 유린 문제의 심각성을 비판하는 영어 기사를 작성함. 등장인물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 작품에 드러나는 당시의 시대상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아동의 가치에 대한 안타까움을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잘 녹여냄
- ‘사회복지에서의 갈등’에 관한 지문을 읽고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하는 방안》을 주제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함. ‘제3의 길’ 및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자유론자와 평등론자의 입장을 비교함. 시장의 자유는 유지하되 개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영리 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촉구함
- 아동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진로학술동아리를 조직하여 지역 돌봄교실에 관한 탐구를 진행함

[자기소개서 발췌]

생활과 윤리 시간에 접한, 저소득층에게 최대의 이익이 분배되도록 법과 제도를 편성해야 한다는 롤스의 이론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정의관을 스스로 공부하고자 ‘정의론’을 읽었으나, 도입 부분부터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즐겁게 정의론을 공부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롤스 철학에 관심이 있던 친구에게 토론식 학습을 제안하여 독서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정의론을 해설한 책을 읽고, 강의 자료를 찾아보며 정의론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공부 도중, ‘합리적 개인들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 및 사회적 배경을 모르는 원초적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직간접적인 보호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서 롤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롤스의 이론과 대립한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이익을 주는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구조의 보편적 복지를 찾고자 복지제도를 연구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기본급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특성별 지원을 통해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배하는 구조가 있음을 알게 됐고, 롤스가 말한 보편적 복지란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같은 이익만 주는 형태의

아동수당을 롤스의 분배정의 구조로 편성해보며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 활용능력을 함양했습니다. 롤스가 말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문을 정의론 해설 자료가 아닌, 복지 구조를 제시하는 논문에서 해소하며 폭넓은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2. 의미있는 활동

아동 정서 발달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정서 발달 교육으로써의 초등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지역 초등 돌봄교실의 발전을 목표로 프로그램 질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서적을 통해 문화 활동, 신체 활동, 환경 활동 등이 아동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지역의 돌봄교실 활동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에는 신체활동과 환경 활동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터뷰를 통해 학교 수업과는 달리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는 것이 원인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도청홈페이지에 아동 정서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인 정책 기획 분야를 꿈꾸면서 토론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이슈를 다룬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토론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진로학술동아리를 조직하였습니다. 검경수사권, 투어리스트피케이션, 소년법 연령 개정, 예멘 난민 수용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이 중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의 발제를 맡게 되어, 논제에 대한 제 입장과는 별개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각 측의 입장을 분명히 숙지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 주장의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었고, 사회현상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태도를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입장의 주장이라도 근거가 상이한 것을 보며, 단순히 찬성과 반대만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난민 수용 기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2년 동안 교육 봉사를 하며 매일 되새긴 문장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완하고자 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모색하고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배들과 친구들 및 복지사분들의 추천으로 봉사장이 되었습니다.

봉사장으로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구상하던 중, 평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만 있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박미진)’을 읽었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진 아이들은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론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보드게임을 이용하면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선택의 이유를 묻고 근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상에서도 근거를 들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등 주관이 뚜렷해져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고안하고 실행한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하던 중, 확고한 주관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토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게임 과정에서 팀원과의 토의를 유도하였고 점차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시작한 교육 봉사였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저에게 교훈을 주었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과 함께 발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4. 독서활동

정서적 흡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최성애, 조벽 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갈지 고민하고, 아동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을 확립하게 해준 책입니다. 특히 아동기의 애착 형성이 전 생애에 걸친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회문제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정책기획가가 되면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하고자 했던 저의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정책은 단순히 눈앞에 놓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인간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아동의 보육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제가 돌봄 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고, ‘무엇이 행복을 좌우하는가?’를 읽으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에 대해 생각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철학(신정완 저)

책을 읽으며 생긴 의문을 독서로 해소한 경험은, 독서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탐구를 유도하며 끊임없는 지식과 사고의 확장을 돕는 ‘동력’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저항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조세저항이 센 이유를 여쭙어보았고, 복지역사가 짧아 복지제도의 수혜를 경험한 사람이 적어서 저항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세저항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 선배가 저에게 이 책을 권해주었습니다. 책을 통해 보편적 복지 중심의 정책을 운용하면 재원 부담자가 혜택을 받아, 조세저항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별주의 중심의 제도를 운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제가 보편주의 정책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계층 간 연대의식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하인리히 뵐 저/김연수 역)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제에 호기심을 느껴 읽게 된 책입니다. 처음에는 기자가 주인공에게 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움으로써, 주인공 어머니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정보가 일방적인 여론을 형성했던 ‘240번 버스 사건’의 진상을 다룬 기사를 읽게 되면서, 잘못된 ‘미디어 프레이밍’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여론만을 보고 버스 기사를 비난했던 태도를 반성하고 편향된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 불편한 진실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문학 작품이 당시의 사회상 및 사람들의 경향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사회상을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내재된 당시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며 작품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② B 학생 (1.91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31 | 평균재적인원 213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5	1.00	1.00	1.00	1.00
영어	5	1.25	1.00	1.00	2.00
수학	4	1.63	1.50	1.50	2.00
사회	7	1.58	1.75	1.87	1.00
과학	3	1.33	1.50	1.00	-
예술 · 체육	5	A	A	A	A
생활 · 교양	5	1.13	1.33	1.00	1.00

- 사회 이수과목 : 사회, 사회 · 문화,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 과학 이수과목 : 과학, 물리 I, 지구과학 I
- 생활/교양 이수과목 : 기술 · 가정, 정보, 일본어 I, 한문 I, 한문 II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경남 소재 일반고

iii) 교내 수상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우수(2위)	2017.05.18.
수학 경시대회 은상(3위)	2018.06.14.
탐구보고대회(공동수상, 4인) 은상(3위)	2018.12.28.
인문사회 경시대회(사회문화 부문) 장려상(3위)	2019.05.21.
영어 독해 경시대회 은상(3위)	2019.06.14.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2위)	2019.07.17.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자율동아리에서 사회심리, 청소년/가족심리 등 분야별 대표 저서를 읽고 토론한 뒤 TV강의 시청, 저자와의 만

남 등의 심화 활동을 함.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발생원인’을 연구하면서 부장으로서 전체 연구를 설계하고, 부원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결과물을 논문으로 완성해냄

- 동아리 부원들과 책 ‘행복’에서 추천한 ‘감사일기 쓰기’를 한 뒤 자신의 심리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본 결과 부원 대부분이 변화를 느낄 수 없었던 것에 의문을 갖고 ‘행복’에 대해 탐구함. 책 ‘행복의 기원’을 읽고 “행복의 본질은 고통과 쾌락이므로 긍정적 생각을 갖는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에서 실험의 실패 원인을 찾음. 행복은 사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 진화심리학에 흥미를 느껴 데이비드 버스의 ‘진화심리학’을 읽음. 부모 자식 관계를 ‘유전자 전달과 운반’이란 기능적 관점으로만 해석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양육과 친족문제’를 ‘생존과 번식’이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었던 기회였음
- 심리주제 신문을 만들어 기획기사와 인터뷰, 사설 등 다양한 양식을 활용해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짚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함. ‘갑질, 분노범죄’ 등의 원인을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심리 측면에서 찾고, 관련 책의 저자를 찾아가 직접 인터뷰 한 뒤, 제도적 차원에서 ‘분노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함. 또 카너먼 교수의 ‘프레임링효과’를 설명하면서, 똑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가치관 정립도 필요하며, ‘건강한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진다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함
- 생활과 윤리 수업에서 배운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알아보기로 하고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교우관계’가 사이버불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운 뒤 ○○와 △△의 두 중학교 440명을 설문조사로 비교분석해 가설을 입증함.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해서는 친구와의 ‘면대면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함
-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며 훈육이란 이름의 체벌이 정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의문을 품고 답을 찾던 중, 아동심리학자 엘리스 밀러의 ‘사랑의 매는 없다’를 읽게 됨. 체벌이 신체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저자의 또 다른 책 ‘폭력의 기억’을 추가로 읽었음. 부모도 자식을 학대할 수 있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부모의 잘못을 ‘효’나 ‘사랑’이란 말로 감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영화 ‘미쓰백’과 엮어 소개하며 독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서평을 써서 교내 서평지에 실림
- ‘심리적 경향성’으로 알고 있던 ‘확증편향’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지문을 읽고 본문에 나온 칼포퍼의 주장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칼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읽기’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주제신문’에 발표함. ‘내가 틀리고 상대가 옳을 수 있다’는 열린 자세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며 근거 없이 상대를 비난하는 태도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자존감이 낮은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함

[자기소개서 발췌]

13살에 겪은 친구의 죽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고,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모와 친구’의 영향에 주목하던 중 영화 ‘사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였던 제 친구와 사도 세자가 겹쳐보였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따라가다 보면 의문이 풀릴 것 같아 조사하던 중 ‘정병설, 이덕일’의 논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료를 두고 극과극의 주장을 했지만, 두 책을 비교해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영조의 ‘기대와 실망, 그로인한 갈등’이었습니니다. 여기에 집중해 조사하면서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게 됐고, ‘훌륭한 군주’라고만 배웠던 영조가 ‘부모’로서는 문제가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자이기 전에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존감을 길러야할 청소년기에 사도는 아버지에게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생모를 비롯한 가족 누구도 그를 보듬지 않은 것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후 ‘엘리스밀러’의 책에서, 부모에게 받은 학대를 ‘사랑이나 효’로 감추고 부정하면, 아이는 평생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음을 알게 되면서, “유교전통이 강한 우리사회는 그런 심리적 억압이 더 심할 수 있고, 사도세자의 ‘광증’이 아동학대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계제와 부거제’에 대한 전경수 교수님의 글에서 “힘과 권위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린 우리의 가부장제가 가족의 행복을 막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의미있는 활동

학생들이 급식식단을 짜면서 맛은 좋아졌지만 가공식품 사용이 늘어나 고민하던 중 ‘학교급식에 GMO사용 찬반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유전공학 지식이 부족한 문과생에게는 예선통과도 어려워보였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급식이 주제라 도전했습니다. 인터넷과 저널을 찾아 찬/반 논거를 분석하면서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GMO 반대 측은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부추겼고, 찬성 측은 실험결과는 거대곡물기업이 후원한 연구라 신뢰성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MO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여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끌어내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해 청소년의 밥상만큼은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건강과 우리 농업’ 모두를 지키는 해법이라는 주장을 담아 예선편집을 제작하여 본선에 올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한식이 ‘안전한 급식’의 대안이란 것을 알게 됐고 이후 식단에 적극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광우병, 메르스, GMO처럼 진위 판단에 과학지식이 필요한 사안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문/이과를 떠나 “과학 공부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유인물을 찍고, 학습관련 검색과 급한 통화까지 휴대폰이 꼭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칙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강제로 수거하고 있어 학생들은 선생님 몰래 숨겨서 사용하거나, 무거운 노트북과 태블릿을 들고 다닙니다. 기능이 거의 같은데도 이것은 제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록 저는 스마트폰이 없지만 이런 상황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교부회장에 출마해 ‘휴대폰사용 공론화’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했고, 찬성이 83퍼센트가 넘자 학생들은 곧 자율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반대 한다’는 소수의견과 교사, 학부모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설득한 뒤,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 고등학교’의 자율화 기사를 보고 담당 선생님께 그곳 상황을 여쭙보니 그 곳도 “자율화 시행 반년 만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답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침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휴대전화 관련 항목이 들어있어 공청회 방청을 신청하고 참석했지만 상대측 얘기는 들으려고도 않는 어른들이 몸싸움을 벌여 시작도 못하고 파행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질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에서, ‘소통과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운다면 우리 사회도 점차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전교생에게 알리고 “성급한 자율화 보다는 휴대폰 사용의 장단점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토론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모으자”고 설득했고, 처음에는 찬성했던 학생들도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본 뒤, 문제점에 공감했습니다. 또 학교 측에는 ‘휴대전화 시범 사용’과 ‘교내 토론회’ 개최를 건의해 공론화를 향한 첫 걸음을 뚫 수 있었고, 3학년 때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리면서 후배들이 토론문화를 익힐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4. 독서활동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양희승 역)

○○이 분지라 배웠어도 체감을 못했는데 도시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MO토론회를 준비하며 읽은 이 책이 그 전망대 같았습니다. 환경, 테러, 가족해체 등 관련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글로벌 경제화’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을 떠나 외부에서 바라보며 이를 깨달았다는 작가의 고백처럼, 저도 중1때까지 살았던 ○○를 떠나보니 ‘성적만이 최고의 가치고, 거기서 비켜나있던 제가 이방인처럼 보였던 것’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낯선 것은 두렵지만 익숙하고 편한 것을 떠나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에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숲 전체를 보는 통찰력을 길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라다크인의 온화한 가족공동체에서, 아이는 균형 잡힌 어른으로 자라고, 노인은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상담센터와 요양원’ 봉사에서 느낀 문제들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권수영 저)

못하는 게 없는 ‘해결사’ 같았던 어머니가 가끔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셔도 그저 성격이라고만 여겼는데, 언제부터인가 짜증과 화가 부쩍 느꼈고 저도 힘든 일이 생기면서, 부딪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동아리활동에서 만난 이 책을 어머니와 함께 보면서, 많은 일을 책임져야하는 어머니가 약한 모습을 감추면서 불안, 슬픔 같은 온건한 감정은 숨어두고, 강경한 감정은 더 자주 튀어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바쁜 중에도 늘 제게 공감해 주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도 확인하면서,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다 함께 풀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주고받는 공놀이 같아서 상대가 세게 친 공을 그대로 받아치면 더 세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저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친구를 보면 부딪치거나 피하기보다, 그 친구가 자라면서 자존감을 다친 것은 아닌지, 공격적인 감정 뒤에 ‘불안과 좌절’이 숨겨진 것은 아닌지 헤아리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행복의 기원(서은국 저)

‘감사일기를 쓰면 정말 행복해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동아리부원들과 했는데 아무도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않아서, 실험실패의 원인을 찾으며 행복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행복을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한 것이 무척 신선했고 행복은 감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원인을 찾은 듯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나? 살기위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봤는데, 윤리시간에 관념적 행복을 먼저 배워선지 “살기 위해 행복이 필요하다”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행복은 지극히 사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야하고 ‘가족과의 즐거운 식사’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좋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다만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생존과 번식’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내 의지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 진화심리학 책을 따로 읽어봤지만 완전히 수긍할 수 없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③ C 학생 (2.29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33 | 평균재적인원 282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5	1.60	1.50	2.00	1.00
영어	4	1.39	1.50	1.50	1.00
수학	4	1.20	1.50	1.00	1.00
사회	6	1.27	1.50	1.00	1.50
과학	4	2.40	3.00	1.50	-
예술 · 체육	7	A(6.00)	A	A	A(6.00)
생활 · 교양	6	2.37	3.00	2.00	1.80

- 사회 이수과목 : 사회 · 문화, 법과정치,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윤리
- 과학 이수과목 : 과학, 과학교양, 생명과학I, 지구과학 I
- 생활/교양 이수과목 : 기술 · 가정, 정보,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한문 I, 한문 II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경기 소재 일반고

iii) 교내 수상

정보사고력대회 우수상(2위)	2017.05.15.
토론대회(공동수상, 3인) 장려상(3위)	2017.06.09.
수리창의문제해결력대회 우수상(2위)	2018.07.18.
프로젝트공모전(공동수상, 4인) 우수상(2위)	2018.07.20.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의 주인공인 허생원의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가져온 불행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성서 방네 처녀의 현실은 ‘불행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토론왕으로 선정됨.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의 내용을 요약하고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에 적용하는 글쓰기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사랑의 실천’을 실현한 것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함. 또한 ‘수오재기(정약용)’에서 해결

책을 찾아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함

- 청소년의 일상화된 욕설 사용을 통과이례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서 상대팀의 '또래간의 유대감 형성, 사회의 현실 표현' 주장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명확히 밝히는 질문을 하여 배심원들의 호응을 받음. 토론 배심원으로서 의미 있는 질문을 잘하고 타당한 판정을 잘 내림
- '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의 전문을 읽고, 작품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소설을 분석함. 특히 익명화된 주인공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 묘사되지 않은 인물들의 뒷 이야기를 재구성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단절된 인간관계를 통한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모에 대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작품의 이해도를 높임
- 학생 중심 배움 수업 활동에 참여하여 '아팔란치아인들의 특성'이라는 글에 대해 발표함. 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원문을 찾아 읽고 아팔란치아인들의 중립성 윤리에 관한 해외논문들도 검색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심화학습함. 단순히 주어진 글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팔란치아인들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찾아 보고 그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사상,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분야를 연구하며 관심의 폭을 확장해가는 부분이 인상적임
- 사회학적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사 및 독서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임. 주제발표 시간에 사회적 불평등 단원에서 '남아공의 사례를 통한 빈곤의 해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함. 남아공의 빈부격차 및 빈곤이 경제적 결핍에서 시작되어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 차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특히 학교 교육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남아공에서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기초적인 사회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1차적 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참신함
- 동아리 회장으로 법률탐구반의 활동 계획을 수립함. '상품의 형태 모방에 대한 부정 경쟁 행위'의 판결문을 보고 판결의 근거가 된 법 규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품'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법의 유동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음

[자기소개서 발췌]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개념을 공부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교과 외의 내용을 심화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은 법과 정치 과목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넘어 이 과목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고, 법에 대해 교과 내용 이상의 것을 얻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참고서는 저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원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는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사유가 정해지게 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서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이러한 사유가 정해진 목적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긴급피난, 정당방위는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등 법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의 법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는 국민투표의 개념만 설명할 뿐이어서 '절차상 비효율적인 국민투표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를 선생님께 여쭙본 결과 국민투표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국민투표의 2가지 방식으로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는 플레비시트와 특정한 사람이 직권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레퍼랜드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국민투표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 과거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동아리원들과 함께 위헌 판결이 난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 교과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개념 자체를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단지 시험성적을 잘 받는 것 이상으로 지적 탐구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 의미있는 활동

기업의 횡포로 부당노동을 당하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법률동아리에 가입해 산업재해를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을 다룬 모의재판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 소장을 작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변호인의 요구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원고에게 가정이 있어 재취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신체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재활비용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상황에 맞게 재판에서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것을 보고 비슷한 문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바라볼 때 그들을 단지 필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필요를 분석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토론 수행평가를 하고 토론왕에 선정되며 좋은 호응을 받아 용기를 얻어 교내 토론대회에 도전했습니다. ‘인간의 지능 수준을 초월하는 AI를 개발해도 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준비하며 문과인 저는 제도적, 윤리적 측면에서 근거를 준비했고 이과인 친구는 기술적 측면에서 준비했습니다. 찬반 입장을 현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양측 주장을 모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상토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제도를 통해 인간에게 피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AI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저의 주장에 친구들은 스스로 발전하는 AI가 인간을 뛰어넘어 규제를 무시할 수도 있다며 저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다른 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닌 제 주장에 대한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반박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관심 분야의 관점으로만 사회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그간 현상에 대한 분석이 편향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 타인의 생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저는 평소 어린아이들의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좋아해서 주변의 아이들과 잘 놀아주며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보는 아이들과 달리 세상에는 어른들의 잘못이나 불운으로 인해서 이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자 5일 동안 아동 임시 보호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일과를 함께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저와 노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일과는 자기들끼리 모여 노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자원봉사자 외에 정규 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각자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여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 독서활동

라틴어 수업(한동일 저)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통해 내 인생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차에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문의 목적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부라는 것은 결국 남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심 분야가 아닌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지쳐만 가던 저는 이 책의 메시지를 통해 공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인생의 방향이 훨씬 더 확실하고 환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바 대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단지 좋은 성적이나 좋은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간들이 나의 꿈과 세상의 아이들의 꿈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동기와 책임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저/김명철 역)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사람들은 이기심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 뿐 가슴 속 어딘가 도덕심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누구라도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후 윤리와 정의는 합리성과 논리의 문제이지 도덕심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분석적 관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통해 한 문제 상황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적 관점들을 알게 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이 꼭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 분석과 비판적 통찰을 통해 다각도로 문제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의 힘(팀 마샬 저/김미선 역)

2학년 때 한국지리를 배우며 흥미를 느껴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 이전까지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 달리 지리학의 탐구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리학과의 관련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나 종교의 영역까지 지리학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을 보며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하라의 넓은 사막이 아프리카를 반으로 갈라놓아 수단에 내전을 가져온 것처럼, 사회적 현상에는 겉보기에는 작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기존에 생각지 못한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정책 연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사회 문제의 이면에 있는 숨은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